

# 러시아 부정선거 규탄시위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중산층 비율\*

최 우 익\*\*

## 1. 서론

2011년 말 2012년 초 러시아에서는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급증했는데, 세계 언론에서는 이 시위의 적극적인 동참자로 바로 중산층을 지목하였다.<sup>1)</sup> 특히 이들의 행동이 수도권뿐 아니라 러시아 전역으로 확산되었는데, 이 점에서 이것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중산층의 활약상은 마치 러시아 중간계급 형성과 시민사회 출현의 신호탄처럼 비추어졌고, 기존 권위주의적 국가의 전복이 금방이라도 도래할 것처럼 보이게 했다.

본 연구에서는 러시아의 주요 부정선거 규탄시위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과연 각 지역의 규탄시위가 중산층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즉, 지역적으로 다양한 사회계층구조를 지닌 러시아 지역들 중에서, 중간계급의 분포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규탄시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어났다면, 이번에 전개된 일련의 시위는 중간계급의 주도성이 강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위 발생 지역의 중간계급 비율이 낮다면 이것은 달리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현 단계 러시아 전체 및 지역별 중간계급의 상태를 엿볼 수 있는 연구적 함의를 지닌다. 즉, 단기적으로 이 연구는 부정선거 규탄시위자들이 과연 중산층 중심이었던지 규명하는

---

\* 이 연구는 2012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HK 교수.

1) 시위자의 캐릭터를 묘사한 한 언론 기사를 보면, 이들은 고등교육을 받은 남성이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편이며, 인터넷을 잘 활용하는 사무원 등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Портрет митингующего,” <http://storage.futubra.com/source/151960.jpg>(검색일: 2012.09.19).

데에 기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 단계 러시아 중간계급의 위상과 전망을 파악하는 기초적 단서를 제공하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년 전 본격적으로 시작된 러시아의 시장개혁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또한 소유자 계급이 대중적으로 형성되지 못하면서, 1990년대 러시아에서는 사회계층의 전반적인 하향분화와 빈곤화 현상이 진행되었다. 게다가 1998년 경제위기는 당시 형성되기 시작한 중간계급 내부에서조차도 양극화 현상을 일으키며 이들을 몰락의 길로 내몰았다. 그러나 2000년대 푸틴 시대에 들어와 러시아는 질서와 안정을 되찾고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중간계급도 최근 여러 측면에서 회복세를 보이며 유력한 사회집단으로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특성과 영향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지금 현안 과제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물론 러시아 중간계급에 대한 연구는 간단치 않다. 우선 이들의 존재 자체와 형성 정도에 대한 평가조차 상이한 판국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현재 러시아에서 1) 중간계급은 존재하며 확대되고 있다, 2) 중간계급은 존재하지만 망야 상태에 있다, 3) 중간계급은 존재하지만 미약하다 등으로 나뉜다.<sup>2)</sup>

게다가 중간계급에 대한 연구는 개념, 범주, 관점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방법론에 입각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첫째로는 무엇보다도 중간계급을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소비수준을 지닌 집단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다. 이들은 중간계급을 일정한 소득 혹은 부를 지닌 집단으로 정의하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는 연구자들마다 자신의 정의 기준이 있고, 또 그러한 기준을 정하는 데에도 연구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두 번째 입장은 네오 베버리안적인 입장에서 중간계급의 범주를 나누고 있는데, 즉 일정한 전문직 특징, 교육, 부나 수입의 특징, 자기 정체성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한 중간계급을 사회, 정치, 경제의 ‘안정자’, 고숙련 노동력을 지닌 ‘생산자’, 새로운 사회·경제적, 사회·문화적 실천의 유포자, 문화의 담지자 등으로 여기고 있다. 세 번째 입장은 중간계급의 연구를 학술적인 차원뿐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도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중간계급의 범주를 고려하는 데에 있어서 부나 전문정보다는 개인의 정체성과 심리적 특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회적 자각과 정치적 행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sup>3)</sup>

2) Симонян(2012), 45.

이렇듯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간계급을 여러 사회계층의 하나, 즉 하층이나 상층 사이에 위치한 중간계층으로 이 집단을 파악하는 개념으로부터, 사회의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집단으로서의 중간계급으로 보는 개념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전적인 의미에서 출발해 볼 때도 중간계급은 단지 일정한 부의 소유자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지닌 기본 가치의 담지자<sup>4)</sup>로서 매우 복합적인 존재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간계급에 대한 정의로부터 연구방법까지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는데, 본 연구는 주로 통계자료를 동원하여 분석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으로 인해, 방법적 편의상 중간계급을 일정한 소득 수준을 지닌 중산층으로서 다루고 있다. 물론 중간계급을 정의하는 데에는 소득 외에도 정체성, 교육수준, 생산관계, 정치의식 등 여러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간계급으로의 결정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물질적 측면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현실적으로 중산층의 범주와 상당히 가깝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간계급을 일정한 소득을 지닌 중산층의 차원에서 분석하고 접근한다(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각주 26에서 설명함).

그런데 러시아 중간계급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또 주목하여야 할 바는 러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이다. 현재 러시아에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해 있는 지역군들이 형성돼 있으며, 이들은 해당 지역 내에 서로 다른 사회계층화 현상과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차이와 특성은 러시아 중간계급 연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사실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사회계층화 현상에 대해 그동안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사회계층구조나 중간계급의 지역별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들은 많이 부족한 편이다. 물론 사회계층에 대한 지역 연구가 부분적으로 있었지만, 그것은 러시아 전체 사회계층연구로 귀결되는 기초 자료로 이용되곤 했다. 그런데 2000년대 푸틴 시대에 들어와 러시아 연방정부의

3) Тихонова(2007), 157-158. 또한 시카라탄은 중간계급 연구에 대한 다섯 가지 정도의 흐름과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Шкараган 2006: 174-219). 그 외에도 중간계급과 중간계층을 개념적으로 나누는 입장이나, 혹은 양자를 넓은 의미에서 동일하게 보는 입장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이렇게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있는 이유는 중간계급의 존재 자체가 복합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사실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들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

4) Симонян(2009), 55-56.

각 지방에 대한 정책적, 경제적 차원의 접근이 보다 적극화되고 다양화되었으며, 또한 도시나 주, 혹은 연방관구 차원의 지역발전이 시도되는 등 러시아 각 지역들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은 곧 러시아 지역 자체에 대한, 그리고 각 지역을 단위로 한 정밀한 사회과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sup>5)</sup>

지역, 지역 주민, 사회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연구에서는 보통 인구 및 이주 추이, 월평균 소득 및 임금 수준, 최저생계비, 실업률, 빈곤, 각종 소비지수, 교육수준, 노동, 취업부문 및 산업분야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가 이용된다.<sup>6)</sup> 본고에서는 이중에서 필요한 지표들을 선택하여 활용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부정선거 규탄시위에서 나타나는 지역별 중산층의 상황을 다루는 바, 이러한 분석의 경우 정치적 측면이 관련되지 않을 수 없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sup>7)</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정선거 규탄시위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 최저생계비 등 각종 통계 지표들을 교차하여 지역별 중산층의 분포와 해당 지역의 중산층 비율 등을 분석, 비교한다. 분석의 기본적인 단위는 83개 연방주체별 지역이며, 이중에서 주요 시위 지역을 선정하여 사회경제적 특성과 사회계층화 현상을 분석하거나 비시위 지역(혹은 비적극적 시위 지역)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분석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주로 러시아 국가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발간한 다양한 통계자료들과 인터넷 언론 자료들을 활용한다. 현재 가장 업데이트된 통계청 자료는 2010년 통계수치들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기초 자료로 삼았다.<sup>8)</sup>

- 5) 러시아의 지역연구의 중요성과 지역적 특수성, 중간계급의 지역별 형성과 특성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들 참조. Зубаревич(2012), 34-35; Климанов(2009), 35-49; Анурин(2006), 3-15; 최우익(2008), 449-473.
- 6) 이러한 분야의 대표적 연구로는 Зубаревич(2012), Климанов(2000), Климанов(2009) 등이 있다.
- 7) 사실 지역에 대한 사회계층, 특히 중간계급에 대한 연구에는 많은 난점이 있다. 중간계급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뿐 아니라 내적인 측면, 예를 들어 그들이 지나는 의식, 태도, 문화, 가치관, 지향성 등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 인터뷰 등이 연구 방법으로 동원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할 경우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에는 수많은 인력과 연구자본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 때문에 지역별 사회계층이나 중간계급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에 대한 거시적 양상을 포착하기 위한 연구는 쉽지 않다.
- 8) 현재 러시아 통계청에서 2011년 시리즈들이 출판된 상태이며, 이 자료들은 2010년 통계수치들을 담고 있다. 2012년 시리즈들과 여기에 담길 2011년 통계수치는 2013년 초에 정리되어 발간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통계 수치는 2010년의 것임을 밝혀 둔다. 이 수치는 규탄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과 약 1년의 차이

본고는 1장 서론에 이어 2장에서 중간계급의 형성과정과 특징, 3장에서 중산층의 지역별 분포, 4장에서 시위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중산층, 5장에서 연구 내용과 의의를 정리한다.

## 2. 중간계급의 형성과정과 특징

러시아에 시장개혁이 진행되면서 큰 폭으로 사회변동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사회계층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는 과정에서 중간계급 형성의 문제는 주요한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1990년대 초부터 중간계급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개념 규정에 관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였고<sup>9)</sup>, 1990년대 후반에는 일정한 연구 성과들이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98년 모라토리엄 선언과 경제위기로 인한 중간계급의 와해는 학자들의 주된 연구초점이었다. 당시 한 연구는 1998년 위기 이전에는 중간계급이 러시아 사회계층에서 25% 정도를 차지했는데 그 후로는 18%로 축소되었다고 추산했다. 또한 포스트 소비에트 러시아에서 중간계급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사실로서 인정될 수 있지만, 아직 그들은 말없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평을 내렸다.<sup>10)</sup>

1998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평가들이 이어졌는데, 중간계급이 발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지적과 함께<sup>11)</sup>, 정체성을 지니며 사회적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만한 중간계급을 논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나왔다.<sup>12)</sup> 더 나아가 이들은 ‘특별히 부유하지도 않고, 특별히 가난하지도 않으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측면에서 양극화되고 있는 사회 집단들 사이에 낀 단순한 대중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sup>13)</sup> 따라서 후기산업사회, 그리고 시민사회와 법치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할 수 있는

---

가 있지만, 그 사이에 큰 사회적 변동이 없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고 보인다.

9) Умов(1993), Беляева(1993).

10) Горшков, Тихонова и Чепуренко(1999), 232-237.

11) Аврамова и Овчарова(2000), 15-22.

12) Беляева(2001), 158-176.

13) Дилигенский(2002), 272-279.

중간계급의 형성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판단되었다.<sup>14)</sup> 실제로 중간계급에 대한 대규모 현장 조사가 2000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이에 따르면 ‘중심적인’ 중간계급은 양적으로 10%를 채 넘지 못한다고 평가되었다.<sup>15)</sup>

그런데 2000년대 러시아에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다. 석유 및 가스의 원가 상승과 수출로 러시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소득도 점차 늘게 되었다.

<표 1> 러시아 주민 일인당 월평균 소득 및 최저생계비 추이<sup>16)</sup>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월평균소득	941	1010	1659	2281	3062	3947	5170	6383	8112	10196	12603	14948	17009	18881
최저생계비	411	493	908	1210	1500	1808	2112	2376	3018	3422	3847	4593	5153	5688
최저생계비미만소득인구	31	34	42	42	40	36	29	26	25	22	19	19	18	18
” 비율(%)	21	23	28	29	28	25	20	18	18	15	13	13	13	13

비고: 1997년 소득 단위는 1,000루블, 1998년 이후는 루블, 인구 단위는 백만 명

<표 1>은 러시아 통계청이 조사한 일인당 월평균 소득 및 최저생계비 추이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월평균 소득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점진적으로 늘다가 2003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997년에 비해 2010년에는 일인당 월평균 소득이 무려 46배 늘었다. 10여 년 동안 이렇게 소득이 많이 증가한 것은 현대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다.

최저생계비도 절대 수치 면에서는 계속 높아졌지만, 상대적으로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층 인구 및 비율은 지금 전체적으로 낮아졌다. 1997년 그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3,100만 명(21%)이었는데, 1998년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2000년 한 때 그 수치는 4,200만 명(29%)까지 올라갔다.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층이란 극빈층을 뜻하는데 국민 중 거의 1/3이 그에 해당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당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짐작케 한다. 하지만 2000년대 그 비율은 계속 떨어져 2010년 시점 극빈층은 약 1,800만 명(13%) 선이다.<sup>17)</sup> 이렇듯 2000년대 러시아 국민

14) Шкараган(2004), 158-177.

15) Малевая(2003).

16)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2005: 185, 205; 2011: 157, 179).

17) 이 수치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도 있다. 2008년 6월 레바다 센터(Левада-Цент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실제 최저생계비는 공식적인 수치보다 2배 이상이

소득은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였다. 이와 같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러시아에서 중간계급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2000년대 러시아 국민 소득증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학자들은 중간계급의 성장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2003년 조사에 따르면 하층은 60.2%, 중간계층은 33.9%, 상층은 5.9%로 조사되면서 중간계급의 성장세가 발견되기 시작하였다.<sup>18)</sup> 더 나아가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주변적인’ 중간계급은 물론 ‘중심적인’ 중간계급만도 25%를 넘으면서 중간계급은 모두 60%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이들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게다가 이들은 모스크바뿐 아니라 지방 여기저기에서도 발견된다고 보고되었다.<sup>19)</sup> 사회계층에 대한 경험적 연구의 선두 주자 역할을 하는 티호노바(H. E. Тихонова) 역시 2007년 시점 러시아에서 하층은 38-40%, 상층은 5-7%, 나머지 중하층을 포함하여 중간계급은 약 55% 정도 된다고 추산하였다.<sup>20)</sup>

또한 2000년대 말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 수직이동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자원이 증가하였고, 고등교육자의 비율이 높아졌으며, 소득이 증대되면서 국민 대다수가 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몇몇 연구자들은 평가를 내렸다.<sup>21)</sup> 중간계층에 대한 주관적 계층의식도 커져서 1998년 자신

---

다(Седов 2008). 또한 러시아에서 최저생계비로 책정되는 비용의 수준은 내용적으로 볼 때 선진국이나 심지어 소련 시대의 기준보다도 낮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공식적으로 책정된 최저생계비 수준은 다른 나라들만큼 국민 생활의 원활한 재생산과 사회적 기능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Шестакова и Соколова 2007). 이러한 여러 입장을 고려한다면 오늘날 형성되고 있는 러시아 중산층의 양적 비율이나 사회경제적 상태도 낮추어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8) 이 조사에 대해서는 Тихонова, Давыдова и Попова(2004), 120-130; Горшков и Тихонова(2004); Тихонова(2005), 29-39 등에 연구방법과 결과가 기술되어 있다. 이 조사는 11개 지역과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9) Авраамова(2008), 28-36. 이 연구에서는 중간계층의 주요 귀속요인으로 물질적 수준, 교육수준, 자기 정체성을 꼽고 있으며, 이 세 요소를 다 갖춘 집단을 중심적 중간계급으로, 이중 한 가지 요소를 갖추었을 경우는 주변적 중간계급으로 보고 있다. 2007년 4개 도시에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든 중간계급은 약 6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2000년에는 이보다 절반 이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8-30쪽). 하지만 이러한 수치들은 학자마다 혹은 연구방법이나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20) Тихонова(2007a), 145.

21) Авраамова и Токсанбаева(2011), 109.

을 중간계층이라 생각하는 비율은 49%였는데 2010년에는 그 비율이 62%로 높아졌다.<sup>22)</sup> 이와 같이 2000년대에 들어와 중간계급은 일정한 형성 단계를 넘어 부분적이거나 정체성을 지닌 사회 집단으로 등장한 것이다.

<표 2> 소득순위 20% 집단별 소득총액 비율 (%)<sup>23)</sup>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집단	5.9	6.0	6.0	5.9	5.7	5.7	5.5	5.4	5.4	5.3	5.1	5.1	5.1	5.2
2집단	10.5	10.6	10.5	10.4	10.4	10.4	10.3	10.2	10.1	9.9	9.7	9.8	9.8	9.8
3집단	15.3	15.0	14.8	15.1	15.4	15.4	15.3	15.1	15.1	14.9	14.8	14.8	14.8	14.8
4집단	22.2	21.5	21.1	21.9	22.8	22.8	22.7	22.7	22.7	22.6	22.5	22.5	22.5	22.5
5집단	46.1	46.9	47.6	46.7	45.7	45.7	46.2	46.6	46.7	47.3	47.9	47.8	47.8	47.7
소득격차율	13.6	13.8	14.1	13.9	13.9	13.9	14.5	15.0	15.2	16.0	16.8	16.8	16.7	16.5
지니계수	0.390	0.394	0.400	0.395	0.397	0.397	0.402	0.407	0.409	0.416	0.423	0.422	0.422	0.421

비고: 1집단 - 최하위, 5집단 - 최상위

하지만 2000년대 러시아 국민 소득의 향상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표 2>는 소득자들을 순위별로 20%씩 끊어 놓았을 때 각 집단의 총 소득액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최고 소득 20% 집단인 5집단이 차지하는 소득액이 전체 소득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목할 것은 200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7년까지 유일하게 5집단의 소득액 비율만 눈에 띄게 높아지고 나머지 집단은 낮아졌다는 점이다. 그 후 2-3년간 1집단과 2집단의 소득액 비율이 미미하게 높아졌지만, 전반적으로 2000년대 러시아 국민의 소득 증가는 5집단, 즉 최상위 20% 국민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2>의 ‘소득격차율’은 최상위 소득 20% 집단 주민들 내의 평균소득과 최하위 소득 20% 집단 주민들 내의 평균소득 간 격차 비율을 뜻한다. 역시 이 격차도 2000년대에 계속 커져 양자 간 차이는 약 17배에 달한다. 지니계수 역시 2000년대에 계속 증가하여 최고 0.423에 달했는데, 통상 0.4가 넘으면 이것은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한 상태임을 뜻한다.

앞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들에서 중간계급의 비율은 최대 55~60%로 평가되

22) Беляева(2011), 18.

23)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함.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2005: 203; 2011: 176).



고 있지만 ‘중심적인’ 중간계급은 25% 남짓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바로 후자가 <표 2>의 최상위 소득 20% 집단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 출현한 집단인 것이다. 즉, 2000년대에 증가된 국민소득이 바로 이들에 집중됨으로써 바야흐로 ‘중심적인’ 중간계급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반면 나머지 집단들에서는 상대적인 소득격차와 불평등 현상이 더 심각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면에서 최상위 소득 20% 집단은 중간계급의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구성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총 소득액 비율이 덜 저하된 그 다음 소득 집단인 4집단(내의 상층부)에도 일정부분 ‘중심적인’ 중간계급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러시아 중간계급의 형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오늘날 러시아의 소유자 집단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독립성과 자발성이 떨어지고, 따라서 그들은 사회·경제적 지주가 될 수 없다. 중간계급의 형성은 지체되고 있으며, 심지어 법을 준수하는 독립적인 기업가 집단조차도 존재하지 못한다. 물론 통계수치 상의 중간적 부와 소비수준을 지닌 집단은 존재한다. 하지만 그들은 사회적 안정자의 역할 등 중간계급이 담당해야 할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4)</sup> 이와 같이 러시아 중간계급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상당히 논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중간계급의 향방에 대해 좀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3. 중산층의 지역별 분포

러시아 중간계급의 출현과 확대는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과거에는 주로 모스크바 등 대도시 중심으로 이들의 모습이 발견되었지만, 2000년대에 중간계급은 여러 지역에서 목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자체의 중간계급에 대한 연구는 별로 진행되지 못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까지 연구 샘플을 확대하여 합친 후 러시아 전체 중간계급에 대해 연구한 사례는 많지만, 지역과 수도권 혹은 지역 간 중간계급을 비교하거나 지역 자체의 중간계급에 대해 초점을 둔 연구는 드물다.

2004년 11월 54개주 15,200명을 대상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중간계급을 비교

24) Симо́нян(2008), 37-49; Симо́нян(2012), 46.

한 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 중 주요 특징만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의 중간계급 역시 대체로 교육 수준이 높은 편이지만, 중간 수준의 전문성을 지니는 중간계급의 비율은 지방이 더 높은 반면,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지니는 중간계급의 비율은 수도권이 더 높다. 이들은 공히 자신의 직업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계층보다 높다. 소득 수준도 다른 계층에 비해 높지만, 수도권의 중간계급보다 지방의 중간계급의 소득 수준이 해당 지역 내의 다른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고 차이도 크다. 또한 지방의 중간계급은 어떤 다른 집단보다도 선거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5)</sup> 이처럼 몇몇 특성들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지역의 중간계급 연구는 현재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본고에서는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중산층에 의해 주도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지역의 시위 양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주요 시위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특징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사회계층이 중산층 중심인지 아닌지를 판단함으로써 규탄시위 참여자의 전체적인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단서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중산층의 각 지역별 분포 상황과 추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다. 먼저 2000년대 초부터 2008년까지 중산층 지역별 분포 추이 상황에 대해 기존 연구결과를 통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sup>26)</sup>

2000년대 중산층 비율의 확대는 모스크바를 비롯한 중앙연방관구의 몇몇

25) Анурин(2006), 3-15.

26) 러시아의 지역별 사회계층 비율을 추산하고자 할 때, 러시아가 광활한 영토와 다양한 지리적 조건을 지녔으며, 이에 따라 주민 삶의 여건이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이 방법에서는 해당 지역 최저생계비의 3.5배 소득을 얻는 사람을 중간 지점에 있는 자로 보고, 그 지점을 경계로 그 지역의 중상층과 중하층을 나누고 있다(Богомолова и Таплина 2003: 397-414). 본고에서는 위의 방법에서 지목하는 중상층과 상층을 ‘중심적인’ 중간계급으로 보고, 이들을 본고의 중산층으로 적용하여 그 비율을 계산한다. 이 추산 과정에 대한 부연 설명은 최우익(2012: 225-231) 참조. 큰 범위에서 중간계급에 속한다고 하여도 내부적인 격차가 심하여 중하층은 러시아 현실에서 대표적인 중간계급의 일원으로 포함시키기 곤란하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는 각주 30 참조. 또한 2장 후반부에서 언급했듯이 2000년대 국민 소득의 증가는 최상위 소득 20% 집단이나 그 다음 20% 집단의 일부를 중심으로 집중되었다. 반면 그 미만 층의 소득은 더욱 줄었기 때문에 중하층과 같은 집단을 현재 형성되고 있는 중간계급의 일원으로 보기는 힘들다.

지역, 북서연방관구의 상트페테르부르크, 남부연방관구의 다게스탄 공화국, 불가연방관구의 타타르스탄과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 우랄연방관구의 가스 및 석유채굴 지역, 시베리아연방관구의 케메로프 주, 극동연방관구의 사할린 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들은 2008년 시점 중산층의 비율이 40%이상(모두 17개 지역이며, 이중 5개 지역은 50~60%대) 되는 곳들이다.<sup>27)</sup>

부유층과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회층이 집중되어 있는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두 중심 도시의 중산층 확대 현상은 충분히 인정되는 바이며, 2000년대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석유 및 가스 채굴 중심지인 우랄지역 역시 중산층의 확대가 충분히 예견되는 곳이다. 타타르스탄 공화국과 케메로프 주도 우랄 다음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양호한 지역으로 평가 받는 곳이다. 한편 여기에서 언급한 지역들은 모두 빈부격차와 소득불평등 현상이 심화된 곳들이라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개선되고 주민의 평균소득이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역 내의 상대적 불평등 현상은 더욱 심각해졌다.<sup>28)</sup>

중산층 비율이 30%대 지역인 경우도 2006년 시점 13개 지역에서 2008년에는 32개 지역으로 약 2.5배 늘었다.<sup>29)</sup> 이 지역들 대다수 역시 중간 수준 이상의 양호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지닌 지역으로 분류된다.

단, 다게스탄 공화국 등 남부연방관구 일부 지역의 경우 사회경제적 상황이 곤란한 지역으로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최저생계비가 낮기 때문이다. 즉, 어느 정도 소득 수준만 되더라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이 지역 주민은 중산층으로 묶일 수 있다.

반면 남부연방관구의 일부, 그리고 시베리아와 극동연방관구의 다수 지역에서는 중산층의 확대가 지체되고 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여전히 공업화 혹은 도시화가 진행되지 못하거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사회경제적 발전이 뒤처지는 곳이다.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 그리고 북쪽 동토의 몇몇 지역들은 러시아 전체에서 최고의 높은 소득수준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최저생계비도 매우 높아서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상태가 열악할 수밖에 없는, 따라서 역시 중산층의 확대가

27) 최우익(2010), 43-45.

28) 각 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 상황과 평가에 대해서는 Аврамова(2006: 108-156) 참조.

29) 최우익(2010), 43.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곳들이다.

이와 같이 러시아에서 중산층의 확대는 상당히 큰 지역적 편차를 두고 다양한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게다가 중산층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지역 내에서 빈부격차와 상대적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는 특징도 나타나고 있다.<sup>30)</sup>

2010년에는 지역 전체적으로 중산층 비율이 꽤 낮아졌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일정정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3>을 보면 중산층 비율이 30-50%대인 지역은 모두 20개에 불과하여 2008년에 비하면 절반 이상 줄었다. 이것은 1998년 경제위기 이후 러시아의 중산층 비율이 급속히 줄었던 때 모습과 유사하다. 2008년까지 중산층 비율이 높았던 지역이 2010년에도 거의 그대로 이어지고는 있지만 각 지역마다 그 비율은 낮아진 것이다.

<표 3> 83개 연방주체별 중산층 및 극빈층 비율과 순위<sup>31)</sup>

지역	중산	순위	극빈	순위	지역	중산	순위	극빈	순위		
러시아연방	33	-	12.6	-	러시아연방	33	-	12.6	-		
중 앙	Белгородская	37	7	8.4	4	불 가	Башкортостан	35	9	12.0	21
	Брянская	26	34	13.6	30		Марий Эл	15	76	24.6	80
	Владимирская	17	73	18.3	62		Мордовия	18	71	19.0	69
	Воронежская	22	51	19.1	70		Татарстан	41	5	8.0	3
	Ивановская	15	76	20.5	76		Удмуртская	22	51	14.6	38
	Калужская	30	19	11.4	20		Чувашская	17	73	18.7	66
	Костромская	19	69	17.3	59		Пермский	32	16	13.8	31
	Курская	29	21	10.8	14		Кировская	22	51	14.1	33
	Липецкая	31	18	10.0	7		Нижегородская	29	21	12.5	22
	Московская	35	9	10.3	10		Оренбургская	25	40	14.2	34
	Орловская	25	40	14.9	41		Пензенская	22	51	15.5	47
	Рязанская	22	51	15.3	46		Самарская	33	14	15.1	43
	Смоленская	24	43	14.7	39		Саратовская	20	65	16.9	56
	Тамбовская	32	16	10.9	16		Ульяновская	23	46	17.0	57
	Тверская	23	46	13.1	28		Курганская	24	43	16.8	55
	Тульская	29	21	11.0	19		Свердловская	39	6	10.1	9
	Ярославская	26	34	12.8	25		Тюменская	51	1	12.5	22
	г. Москва	46	2	10.0	7		Ханты-Мансийский	36	8	10.8	14
	북	Карелия	19	69	15.2		45	Ямало-Ненецкий	43	4	7.7
Коми		29	21	14.7	39	Челябинская	34	12	10.4	11	

30) 따라서 오늘날 러시아에는 소득의 증가와 함께 분명 일정한 중간계급이 존재하고 확대되고 있지만, 동시에 빈부격차와 물질적 불평등 현상이 전 사회계층에 걸쳐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간계급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이 계급 내부를 동질적인 집단이 아닌 다양한 하위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학자들마다 용어는 좀 다르지만 오늘날의 러시아 중간계급은 중하, 중간, 중상 집단 등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이중 특히 중하층은 나머지 집단과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서	Архангельская	23	46	14,3	36	시 베 리 아	Алтай	21	61	17,9	61
	Ненецкий	27	30	7,9	2		Бурятия	23	46	19,8	74
	Вологодская	20	65	17,0	57		Тыва	11	81	30,0	81
	Калининградская	27	30	12,6	24		Хакасия	21	61	18,5	65
	Ленинградская	27	30	12,8	25		Алтайский	12	79	24,3	78
	Мурманская	28	27	13,0	27		Забайкальский	22	51	19,3	72
	Новгородская	28	27	14,9	41		Красноярский	26	34	18,4	63
	Псковская	21	61	15,8	49		Иркутская	25	40	18,4	63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45	3	8,7	5		Кемеровская	33	14	10,9	16
남 부	Адыгея	22	51	16,1	52	Новосибирская	26	34	16,7	54	
	Калмыкия	22	51	37,3	82	Омская	30	19	14,3	36	
	Краснодарский	29	21	15,6	48	Томская	22	51	17,4	60	
	Астраханская	28	27	14,2	34	Саха (Якутия)	21	61	19,1	70	
	Волгоградская	24	43	13,4	29	Камчатский	5	82	19,8	74	
북 갑 카 스	Ростовская	26	34	15,1	43	극 동	Приморский	22	51	16,3	53
	Дагестан	34	12	9,2	6		Хабаровский	23	46	15,8	49
	Ингушетия	13	78	22,2	77		Амурская	12	79	24,3	78
	Кабардино	20	65	15,8	49		Магаданская	29	21	13,8	31
	Карачаево	16	75	18,8	67		Сахалинская	35	9	10,9	16
	Северная Осетия	27	30	10,4	11		Еврейская	18	71	19,7	73
	Чеченская	-	-	...			Чукотский	26	34	10,5	13
	Ставропольский	20	65	18,8	67						

비고: Кабардино: Кабардино-Балкарская, Карачаево: Карачаево-Черкесская, Северная Осетия: Северная Осетия – Алания

<표 3>의 극빈층 비율은 러시아 통계청에서 해당 지역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그 이하 소득자를 산정한 수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별도로 계산하지 않아도 이미 그 지역의 상대성이 수치에 반영돼 있다. 러시아 전체적으로 2000년 29%에서 극빈층 비율은 계속 감소되어 2010년에는 12.6%가 되었다. 2008년 경제위기로 그 해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0.1% 상승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 다시 줄고 있는 추세이다.<sup>32)</sup> 연방관구별로 볼 때 남부, 북갑카스, 볼가, 시베리아, 극동 등에는 상대적으로 극빈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 다수 포함돼 있다. 특히 시베리아연방관구에는 극빈층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들 상당수가 들어 있다. 이러한 러시아 지역별 중산층 및 극빈층의 정보를 바탕으로 4

31) 각주 26에 제시된 방법으로 작성한 표이다. 각 지역별 최저생계비와 소득구간별 주민분포에 대한 수치는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서 얻었으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최저생계비의 3.5배 이상 소득자 비율을 계산한 다음 지역별 순위를 다시 매겼다. 이 표의 지역별 극빈층 비율은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서 얻었으며, 순위는 지역별 비교를 위해 본 연구에서 다시 매겼다.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2011), 164-169 참조.

32)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2011), 168-169 참조.

장에서는 부정선거 규탄시위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 4. 시위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중산층

2011년 12월 4일 총선과 2012년 3월 4일 대통령 선거를 둘러싸고 러시아에서는 유례 없는 대규모 시위가 수도권은 물론 각 지방에서 일어났다. 시위 촉발의 직접적 계기는 선거가 부정으로 치러졌다는 의혹 때문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권위주의적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으로부터 비롯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시위에 대해 러시아 국내 및 세계 언론은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사실 시위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푸틴이 대통령 출마를 공식화한 2011년 9월에 이미 러시아인 관련 전문가는 국민들이 이에 반발하여 “모스크바 인구의 40%, 기타 대도시의 20~30%를 차지하고 있는 중산층이 정치적 기폭 장치가 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정치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다 급진적인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sup>33)</sup> 지금은 다소 수그러들었고, 또 장기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더 두고 보아야겠지만, 전 국민적 저항은 어쨌든 이렇게 가시화되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2011년 12월 겨울에서 2012년 9월 최근 까지도 크고 작은 시위가 계속되었는데, 지방에서는 사실 2012년 3월 4일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보통 소위 전국적으로 60여 지역에서 벌어졌다고 언급되는 시위의 시점은 2011년 12월 10일, 12월 24일, 2012년 2월 4일, 3월 5일 등의 것들이다.<sup>34)</sup>

33) 오애리(2011), 20면 03판

34) “Хронология акций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фальсификации выборов в России(2011-2012),” [http://ru.wikipedia.org/wiki/Хронология\\_акций\\_протеста\\_против\\_фальсификации\\_выборов\\_в\\_России\\_\(2011-2012\)](http://ru.wikipedia.org/wiki/Хронология_акций_протеста_против_фальсификации_выборов_в_России_(2011-2012))(검색일: 2012.10.17); “‘Марш миллионов’ в регионах: обзор PublicPost,” [http://publicpost.ru/theme/id/1583/marsh\\_millionov\\_v\\_regionah\\_obzor\\_publicpost/](http://publicpost.ru/theme/id/1583/marsh_millionov_v_regionah_obzor_publicpost/)(검색일: 2012.09.20) 참조. 한편 2012년 2월과 3월에는 푸틴을 지지하는 시위가 더 큰 규모로 지방 곳곳에서 열렸다(“Митинги в регионах,” <http://www.interfax.ru/society/txt.asp?id=229228><http://www.interfax.ru/society/txt.asp?id=>

60여 지역 중에서 천 명 이상 참가한 시위가 1회 이상 있었던 27개 지역을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sup>35)</sup> 이 시기에 수백 회 일어났던 시위들의 규모는 수십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수십에서 수백 명 규모의 시위는 과거에도 야당 등이 정치적 이슈로 주도하여 자주 일어나곤 했으며, 조직 차원에서 동원된 인원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조직 동원된 시위에 그친 것이라면 그것은 중간계급의 주도성 여부를 논하는 본 연구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sup>36)</sup> 따라서 이러한 조직 동원, 혹은 기존에도 있어 왔던 성격의 시위들을 연구대상에서 가급적 제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규모가 큰 시위일수록 그것은 일반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의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시위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규모가 천 명 이상이었던 시위 지역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천 명이라는 수치는 물론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경계를 나눌 때 시위 지역 60여개 중에서 27개 지역이 선택되는데, 이와 같은 샘플의 크기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충분한 대표성과 적합성을 보장한다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규모가 천 명 미만인 시위와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본고에서 언급된다.

27개 지역과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지표들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

229228, 검색일: 2012.09.12). 본 연구에서 푸틴 지지 시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35) 시위 규모는 사실 경찰, 언론, 주최 측에 따라 추정치가 다 다르다. 언론사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최대치 중심으로 정리한 다음의 자료에 입각하여 20개 지역을 선정했다. “Протестное движение в России(2011-2012),” [http://ru.wikipedia.org/wiki/Протестное\\_движение\\_в\\_России\(2011-2012\)](http://ru.wikipedia.org/wiki/Протестное_движение_в_России(2011-2012))(검색일: 2012.10.11). 또한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색된 자료를 바탕으로 천 명 이상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7개 지역을 더 추가하여 총 27개 지역을 선정했다. “Хронология акций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фальсификации выборов в России(2011-2012),” [http://ru.wikipedia.org/wiki/Хронология\\_акций\\_протеста\\_против\\_фальсификации\\_выборов\\_в\\_России\(2011-2012\)](http://ru.wikipedia.org/wiki/Хронология_акций_протеста_против_фальсификации_выборов_в_России(2011-2012))(검색일: 2012.10.17), “Волна протестов: от Владивостока до Петербурга,” <http://www.svobodanews.ru/content/article/24417573.html>(검색일: 2012.09.12).
- 36) 예를 들어 시민의 호응이 없이 수십 명이 피켓을 들고 서 있다 그냥 해산 할 경우, 이것은 중산층의 참여 여부를 따지고 말고 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이러한 시위가 반복해서 벌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본 연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 4> 부정선거 규탄시위 주요 지역의 시 인구 및 주 인구<sup>37)</sup>

	주 (주도)	시위규모 (명)	주 인구 (천명)	순위	시 인구 (천명)	순위
중앙	Брянская (Брянск)	1,000	1,275	38	435	37
	Воронежская (Воронеж)	1,000	2,335	23	890	15
	Ярославская (Ярославль)	1,000	1,271	40	592	22
	Москва ( - )	150,000	11,552	1	11,514	1
북서	Архангельская (Архангельск)	2,000	1,225	42	349	45
	Вологодская (Вологда)	1,000	1,201	43	302	54
	Калининградская (Калининград)	1,000	941	56	432	38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 - )	25,000	4,869	4	4,849	2
남부	Краснодарский (Краснодар)	1,500	5,229	3	745	17
	Волгоградская (Волгоград)	2,000	2,609	19	1,021	12
볼가	Башкортостан (Уфа)	1,000	4,072	7	1,062	11
	Татарстан (Казань)	1,000	3,787	8	1,144	8
	Удмуртская (Ижевск)	2,000	1,522	31	628	18
	Чувашская (Чебоксары)	2,000	1,251	41	454	36
	Пермский (Пермь)	2,000	2,634	18	992	13
	Кировская (Киров)	1,000	1,339	36	474	35
	Нижегородская (Ниж. Новгород)	1,500	3,308	11	1,251	5
	Самарская (Самара)	4,000	3,216	12	1,165	6
	Саратовская (Саратов)	2,000	2,519	20	838	16
	Ульяновская (Ульяновск)	1,000	1,290	37	614	19
		Свердловская (Екатеринбург)	10,000	4,298	5	1,350
우랄	Тюменская (Тюмень)	1,500	3,405	10	582	24
	Челябинская (Челябинск)	2,000	3,478	9	1,130	9
시베리아	Алтайский (Барнаул)	1,500	2,417	22	612	20
	Новосибирская (Новосибирск)	6,000	2,666	17	1,474	3
극동	Томская (Томск)	4,000	1,047	50	544	28
	Приморский (Владивосток)	1,000	1,954	26	592	21

먼저 시위는 대도시들 중심으로 일어났으며, 그 도시 대부분은 그 지역의 주도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지역 주민들은 각 주마다 자신의 주도를 중심으로 시위를 벌였다.<sup>38)</sup> 본 연구 대상인 27개 주 및 해당 도시의 인구

37) 다음의 자료들의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2011), 20-23, 32-35;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города*(2011), 16, 100, 150, 212, 272, 300, 354.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 주 인구(두 도시는 연방주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와 동격이며, 이 차원에서 주인공으로서의 통계수치가 존재한다)와 시 인구가 일치하여야 하지만, 통계청 자료 자체의 수록 시점이 각각 달라 수치가 약간 차이 난다. 시 인구와 시 평균월급의 순위는 본 연구에서 자체로 매겼다. 도시별 시위자 규모는 각주 34의 자료에 기초하였다.

38)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시위가 있었던 60여개 지역 중 주도가 아닌 일반 도시에서 시위가 일어난 경우는 스타브로폴 변경주의 Пятигорск(2011년 12월 10일)와 Есентуки(2012년 2월 4일) 두 군데뿐이다. 주도인 스타브로폴의 시위 기



규모 순위를 보면 러시아 연방 전체에서 볼 때 대부분 상위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 및 주 인구 순위에서 양자 모두 27위를 벗어나는 시위 지역은 여섯 곳뿐이다. 그만큼 인구가 많은 지역과 해당 주도에서는 전국적으로 어디든 규모 있는 시위가 대부분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도시 인구 50만 명을 경계로 그 이상 지역에서는 다게스탄 공화국의 주도인 마하치칼라와 오렌부르크 주의 주도인 오렌부르크에서만 시위 기록을 발견할 수 없으며, 50만 명 이하의 47개 주도들 중에서는 절반이 넘는 27개 도시에서 시위 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sup>39)</sup> 따라서 인구 50만 명 선을 기준으로 그 이상 도시에서는 대체로 시위가 발생했고, 그 이하 도시에서는 시위가 발생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표 5>에 정리한 1인당 월평균 소득, 그리고 주별 및 시별 1인당 평균 월급, 소비자 지출 등 네 가지 항목을 살펴보았을 때는 어떤 뚜렷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항목들은 해당 지역 주민의 물질적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지표들이다.

83개 연방주체 차원에서 살펴보았을 때, 1인당 월평균 소득의 경우 27개 지역의 순위는 10-20위권에 좀 더 모여 있지만, 70위권 등에도 4개 지역이 있는 등 전체적으로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1인당 주 및 시 평균월급의 경우도 각 지역들은 어느 순위권에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중간 순위권을 중심으로 전체에 퍼져 있다. 1인당 소비자 지출비의 경우에는 20위권과 60위권에 좀 더 지역들이 모여 있는데 이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중상과 중하 순위권을 중심으로 지역들이 전체에 퍼져 있는 모습이다. 따라서 27개 지역별 주민들의 소득 및 지출의 평균적인 물질적 수준으로 보아서는 특별히 어떤 경향성을 발견하기 힘들다. 주민들의 평균적인 물질적 수준이 높은 지역이거나 낮은 지역이거나 골고루 시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록은 없다. 각주 34의 자료와 “Митинги в регионах,” <http://www.interfax.ru/society/txt.asp?id=229228>(검색일: 2012.09.19) 참조.

39) 마하치칼라와 오렌부르크 이 두 지역을 빼고, 주 및 도시 인구 규모가 27위 안에 들면 서도 위의 표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들 모두에서도 천 명 이하이긴 하지만 수백 명 규모의 시위가 발생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인구 규모가 큰 주 및 도시 대부분에서 시위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단 50만 명 이하의 도시들 중 절반 이상의 곳에서는 시위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푸틴 및 정부지지 시위는 소규모 도시들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난 사례가 있지만, 이들은 본 연구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도시별 시위 여부는 각 주 34에서 언급한 자료들로 확인하였다.

<표 5> 부정선거 규탄시위 주요 지역 주민의 소득, 월급, 지출<sup>40)</sup>

		1인월평균 소득(루블)	순위	1인주평균 월급(루블)	순위	1인시평균 월급(루블)	순위	1인소비자 지출(루블)	순위
	러시아평균	18,881	-	20,952	-	-	-	13,200	-
중앙	Брянская	13,928	60	12,326	76	14,698	76	9,669	48
	Воронежская	13,580	56	14,337	59	18,178	56	9,822	45
	Ярославская	14,548	45	16,076	46	20,199	43	9571	51
	Москва	43,876	2	38,411	5	38,411	8	30,078	1
북서	Архангельская	19,310	19	22,192	17	25,021	19	11,688	25
	Вологодская	13,999	50	18,536	27	20,617	38	8,569	63
	Калининградская	15,808	30	18,455	28	22,297	30	11,067	30
남부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24,594	10	27,190	12	27,190	14	17,690	5
	Краснодарский	166,48	26	16,330	43	22,588	29	13,759	20
볼가	Волгоградская	14,122	47	14,856	53	18,294	55	10,631	36
	Башкортостан	17,677	22	16,378	42	22,090	32	14,173	14
	Татарстан	18,158	20	17,350	37	19,410	45	13,820	18
	Удмуртская	12,423	70	14,291	60	17,255	62	8,216	67
	Чувашская	10885	77	13,004	71	15,936	70	7,627	73
	Пермский	19,422	18	17,438	35	22,679	28	13,240	21
	Кировская	13385	59	13,293	67	17,722	60	8,494	65
	Нижегородская	16,358	27	16,328	44	21,821	33	11,443	27
	Самарская	20,279	17	16,479	41	20,691	37	14,611	12
	Саратовская	11,961	72	14,554	54	18,107	57	8,117	69
	Ульяновская	12905	64	13,339	66	16,191	69	8,692	61
	우랄	Свердловская	22,128	16	19,757	24	26,110	15	16,689
Тюменская		28,049	7	38,213	6	29,417	12	17,442	6
Челябинская		16,714	25	17,370	36	20,511	41	11,365	29
시베리아	Алтайский	10,926	76	12,051	77	16,564	65	8,139	68
	Новосибирская	16,090	28	18,230	30	23,375	25	12,482	22
극동	Томская	15,098	38	21,450	19	24,059	22	9,776	46
	Приморский	17,347	23	21,889	18	28,226	13	11,698	24

<표 5>의 네 가지 항목 모두에서 상위권에 있는 지역으로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튜멘 주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고, 중위권으로는 칼리닌그라드, 니제고로드, 첼랴빈스크 주 등을, 하위권으로는 우드무르트, 추바시, 알타이, 울리야놉스크 주 등을 들 수 있다.

40) 다음의 자료들의 통계수치를 이용하여 표를 작성하였다.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2011), 20-23, 32-35, 170-171;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города(2011), 16, 100, 150, 212, 272, 300, 354.

<표 6> 부정선거 규탄시위 주요 지역의 중산층 및 극빈층 비율<sup>41)</sup>

		최저생계비 (루블)	중산층 (%)	순위	극빈층(%)	순위
	러시아평균	5,902	33	-	12.6	-
중앙	Брянская	4,933	26	34	13.6	30
	Воронежская	5,594	22	51	19.1	70
	Ярославская	5,386	26	34	12.8	25
	Москва	8,656	46	2	10.0	7
북서	Архангельская	7,308	23	46	14.3	36
	Вологодская	6,066	20	65	17.0	57
	Калининградская	5,729	27	30	12.6	24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5,773	45	3	8.7	5
남부	Краснодарский	5,737	29	21	15.6	48
	Волгоградская	5,583	24	43	13.4	29
볼가	Башкортостан	5,255	35	9	12.0	21
	Татарстан	4,733	41	5	8.0	3
	Удмуртская	5,090	22	51	14.6	38
	Чувашская	5,007	17	73	18.7	66
	Пермский	6,101	32	16	13.8	31
	Кировская	5,437	22	51	14.1	33
	Нижегородская	5,688	29	21	12.5	22
	Самарская	6,191	33	14	15.1	43
	Саратовская	5,059	20	65	16.9	56
	Ульяновская	5,164	23	46	17.0	57
우랄	Свердловская	5,946	39	6	10.1	9
	Тюменская	5,651	51	1	12.5	22
	Челябинская	5,234	34	12	10.4	11
시베 리아	Алтайский	5,871	12	79	24.3	78
	Новосибирская	6,000	26	34	16.7	54
	Томская	6,139	22	51	17.4	60
극동	Приморский	6,865	22	51	16.3	53

<표 6>은 최저생계비 대비 1인당 월평균 소득을 고려하여 산정한 27개 지역의 중산층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27개 지역 중에서도 지역의 최저생계비는 4천 루블 대에서 8천 루블 대까지 거의 두 배 차이가 난다. 중산층 비율도 러시아 전체 평균은 33%로 산출되지만, 각 지역의 중산층 비율은 10%대에서 50%대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

러시아연방 전체에서 중산층 비율 순위의 구간을 1-27위, 28-55위, 56-83위로 균등하게 지역을 3등분 했을 때, 중산층 고비율 지역(1-27위)에 해당하는 곳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튜멘 주 등 모두 11개 지역이며, 이 지역들은 중산층 비율이 28% 이상 되는 곳이다. 중비율 지역(28-55위)은 중산층 비율이 22-27% 되

41)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2011), 33-35, 164-171.

는 곳으로서 칼리닌그라드, 브란스크, 야로슬라블, 노보시비르스크 주 등 12개 지역이고, 저비용 지역(56-83위)은 중산층 비율이 21% 이하 지역으로서 볼로그다, 추바시, 사라토프, 알타이 주 4개 지역이다.<sup>42)</sup>

이렇게 볼 때 시위 규모가 컸던 27개 지역 중 중산층 비율이 높은 지역은 약 41% 정도이고, 중산층 비율이 중간 정도인 지역은 약 44% 정도로서 후자의 비중이 좀 더 크다. 따라서 중산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부정선거 규탄시위 지역들 중에서 지배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중산층 중비용 지역의 중산층 비율은 22-27%인데 이것은 러시아 평균인 33% 보다 꽤 낮은 수치이다. 또한 여기에 해당하는 12개 지역의 경우 극빈층의 비율이 모두 러시아 평균치인 12.6% 이상이다. 따라서 부정선거 규탄시위가 일어났던 지역들 다수가 중산층 중심의 지역사회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중산층 저비용 지역인 볼로그다, 추바시, 사라토프, 알타이 네 곳을 포함하여 보로네시, 울리야놉스크, 노보시비르스크, 톰스크, 연해주 등 9개 지역은 극빈층 비율이 약 16-25%에 달할 정도로 높다. 러시아연방 전체에서 극빈층 비율 순위의 구간을 지역별로 동일하게 3등분 했을 때, 극빈층 고비용 지역의 극빈층 비율은 16% 이상인 지역이다.<sup>43)</sup> 즉, 이러한 극빈층 고비용 지역이 규탄시위 지역 27개 중 삼분의 일이나 되는 것이다. 이 중 추바시(2,000명), 사라토프(2,000명), 알타이(1,500명), 노보시비르스크(6,000명), 톰스크(4,000명) 등지에서는 시위 규모도 컸다. 이와 같이 부정선거 규탄시위에 동참한 지역 중에는 극빈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물론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같이 중산층 비율이 높은 지역의 대규모 시위는 가시적 효과나 파급력이 매우 큰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도시는 두 개 도시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이곳과 러시아의 다른 지역을 동등한 잣대로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곳처럼 중산층의 비율이 40%가 넘는 지역의 대규모 시위는 분명 중산층의 주도성이 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부정선거 규탄시위 지역 중 이들이 차지하는 위상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시위는 중산층 주도성이 강했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오히려 극빈층 비율이 높은 지역들 다수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42) 순위에 따른 비율은 <표 4> 참조.

43) 순위에 따른 비율은 역시 <표 4> 참조.

## 5. 결론

본 연구는 주요 부정선거 규탄시위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과연 각 지역의 규탄시위가 중산층에 의해 주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는 장기적으로 러시아 중간계급의 향후 전망을 타진할 수 있는 예비적 연구로서 의의를 지닌다.

2000년대에 들어와 상대적인 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 그리고 주민들의 소득 증가 속에서 급속히 확대되기 시작한 러시아 사회의 중간계급은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 사회계층에서 대략 55~60%를 점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중간계급 내에 다양한 하위범주가 존재하고 이들 사이에서도 반부격차나 상대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견고하고 중심적인 중간계급의 비율은 약 25% 남짓으로 추산된다.

본 연구에서는 각종 러시아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별 사회계층구조의 유형과 중산층의 분포 및 양상을 추적하였는데, 이를 통해 전 지역별 주민의 사회·경제적 추세와 비교가 가능했다. 중간계급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방법적 편의상 중간계급을 일정한 소득 수준을 지닌 중산층으로서 다루었다. 특히 중심적인 중간계급에 초점을 두면서, 이 경우 이들을 1인당 월평균 소득 측면에서 중상 및 상층의 소득집단으로 정의하여 접근하였다.

이렇게 정의된 중산층의 지역별 양상은 다음과 같다. 즉, 2000년대 중산층의 확대 현상은 수도권 대도시들과 우랄의 가스·석유채굴지역, 그리고 그 외의 몇몇 사회·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반면 남부, 북캅카스, 시베리아, 극동의 다수 지역들에서는 중산층의 확대가 더딘 편이다.

이러한 양상을 부정선거 규탄시위 지역에 대입해 살펴보았는데, 시위 지역 중에 중산층 비율이 높은 지역들, 예를 들어 수도권 대도시나 석유가스 생산지인 튜멘 주와 같은 곳에서는 중산층의 주도성이 엿보인다. 하지만 시위 지역 중에 중산층 비율이 높지 않은 지역이 사실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시위 사태가 중산층의 주도성이 강했던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게다가 극빈층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중간층의 주도성은 인정되기 힘들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시위 사태는 중산층이 주도했다기보다는 러시아 전체 국민의 정치적

참여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판단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직 러시아 중간계급은 무대의 주인공으로 나설 만큼 견고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실 이번 시위 발생 초기에는 마치 이 사태를 중산층이나 부유층이 주도하고 있다는 식의 다소 과장된 언론 보도(혹은 서방의 시각)가 잇따랐다. 하지만 2011년 12월과 2012년 2월의 모스크바 시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레바다 센터(Левада-Центр)가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물질적으로 다양한 수준의 사회계층 모두가 이 시위에 골고루 참여했다고 조사되었다.<sup>44)</sup> 본 연구에서도 지방의 시위지역별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하면서 이와 유사한 맥락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학자들의 지적에 따르면, 시장개혁이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어도 여전히 러시아에서는 소유자 집단이나 기업가 계층이 굳게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이들은 법이나 제도 차원에서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문화, 의식, 정체성도 뚜렷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수치로는 확인되는 중산층이 이 중대한 국면에서도 견고한 중간계급으로 쉽사리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시장경제사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 사회가 처한 특수한 측면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설령 중간계급의 주도성이 이번 시위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중간계급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러시아 국민들이 자신의 현실을 돌아보며 참여의식을 가지게 되었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 사태는 러시아 시민사회 형성의 길에 청신호를 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러시아 중간계급이 처한 현실의 한 면을 엿볼 수 있었지만, 사회경제 지표 위주의 통계자료에 입각한 분석에는 적지 않은 한계점도 있다. 주민들의 의식과 각 지역의 구체적인 동향에 대한 자료들이 보완되었다면 더욱 역동적인 면을 포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푸틴 지지 시위자들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오히려 이곳에 중간계급이 더 집결하였을 수도 있고, 혹은 반대로 극빈층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수도 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과거와 달리 러시아 국민들이 현실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 분명 주목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44) Волков(2012), 74.

## 참고문헌

= 1차 문헌 =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города 2011.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2011.

Росстат.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05.

Росстат. Российский статист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2011.

= 2차 문헌 =

오애리(2011) 「러시아도 ‘아랍의 봄’ 사태 가능성」, 『문화일보』 9월 26일, 20면 03판.

최우익(2008) 「러시아 중간계층의 지역별 분포와 양상」, 『슬라브학보』 23:3, 한국슬라브학회, 449-473.

\_\_\_\_\_ (2010) 「러시아 중산층 및 상층의 지역별 분포」, 『국제지역정보』 5월 호(통권 171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40-45.

\_\_\_\_\_ (2012) 「러시아 석유·가스 채굴지 주민의 사회·경제적 변동」, 『중소연구』 36:1, 아태지역연구센터/중국문제연구소, 225-231.

Авраамова, Е. М.(2006) “Регион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уровня жизни и занятости,” *Россия в глобализирующемся мире: социальные аспекты*, М.: ИСЭПН РАН, С. 108-158.

\_\_\_\_\_ (2008) “Средний класс эпохи Путина,” *ОНС*, № 1, С. 28-36.

\_\_\_\_\_, и Л. Н. Овчарова(2000) “Российский средний класс: год после августа,” *ОНС*, № 1, С. 15-22.

\_\_\_\_\_, и М. С. Токсанбаева(2011) “Особенности занятости в России и перспективы формир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го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 как актора модернизации,” *Вестник института социологии*, № 3, С. 107-119.

Анурин, В. Ф.(2006) “Контурсы провинциального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 России,” *СОЦИС*, № 10, С. 3-15.

Беляева, Л. А.(1993) “Средний слой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проблема обретения социального статуса,” *СОЦИС*, № 10, С. 13-22.

\_\_\_\_\_ (2001) *Социальная стратификация и средний класс в России*,

М.: Academia.

- \_\_\_\_\_ (2011) “Динамика отношения россиян к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им и политическим изменениям,” *СОЦИС*, № 10, С. 11-25.
- Богомолова, Т. Ю. и В. С. Таплина(2003)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тратификация населения России в 90-е годы: динамический аспект,” *Россия, которую мы обретаем*,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С. 397-414.
- Волков, Д.(2012) “Протестные митинги в России конца 2011 – начала 2012 гг.: запрос на демократизацию политических институтов,” *Вестник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 2(112), С. 73-86.
- Горшков, М. К. и Н. Е. Тихонова(2004) *Россия – новая социальная реальность. Богатые. Бедные. Средний класс*, М.: Наука.
- Горшков, М. К., Тихонова, Н. Е., и А. Ю. Чепуренко(1999) *Средний класс в современном российском обществе*, М.: РНИСиНП, РОССПЭН.
- Дилигенский, Г. Г.(2002) *Люди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 М.: Институт Фонда «Обще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 Зубаревич, Н. В.(2012) *Соци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регионов: Проблемы и тенденции переходного периода*, М.: Книжный дом «ЛИБРОКОМ».
- Климанов, В. В.(2000) *Рег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и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М.: Эдиториал УРСС.
- \_\_\_\_\_ (2009) *Региональные системы и рег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в России*, М.: Эдиториал УРСС.
- Малева, Т.(2003) *Средние классы в Росс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и социальные стратегии*, М.: Теис.
- Седов, Л.(2008) “Кошелёк и взгляды на жизнь,” *Независимая газета*, 11 июля.
- Симонян, Р. Х.(2008) “Средний класс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миф или реальность?,” *ОНС*, № 1, С. 37-49.
- \_\_\_\_\_ (2009) “Средний класс: социальный мираж или реальность?,” *СОЦИС*, № 1, С. 55-61.
- \_\_\_\_\_ (2012) “Реформы 1990-х годов и современная социальная структура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к 20-летию экономических реформ),” *СОЦИС*, № 1, С. 37-47.
- Тихонова, Н. Е.(2005) “‘Новые капиталисты’: кто они?,” *ОНС*, № 2, С. 29-39.



- \_\_\_\_\_ (2007a) “Модель социальной стратификации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эвристичес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различных теоретических подходов,” *Россия реформирующаяся. Ежегодник*, Вып. 6, М.: Институт социологии РАН, С. 112-146.
- \_\_\_\_\_ (2007б) “Средние классы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оциальная стратификация в современной России: опыт эмпирического анализа*, М.: Институт социологии РАН, С. 157-185.
- \_\_\_\_\_, Давыдова, Н. М., и И. П. Попова(2004) “Индекс уровня жизни и модель стратификации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СОЦИС*, № 6, С. 120-130.
- Умов, В. И.(1993) “Российский средний класс: социальная реальность и политический фантом,” *ПОЛИС*, № 4, С. 26-40.
- Шестакова, Е. и Т. Соколова(2007) “Бедность и неравенство и пост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х государствах,” *Мир перемен*, № 1.
- Шкаратан, А. Ю. и В. И. Ильин(2006) “Средние слои: на пути к среднему классу,” *Социальная стратификация России и Восточной Европы: сравнительный анализ*, М.: Издательский дом ГУ ВШЭ, С. 174-202.
- Шкаратан, О. И.(2004) *Российский порядок: вектор перемен*, М.: Вита- Пресс.
- “Волна протестов: от Владивостока до Петербурга,” <http://www.svobodanews.ru/content/article/24417573.html>(검색일: 2012.09.12)
- “‘Марш миллионов’ в регионах: обзор PublicPost,” [http://publicpost.ru/theme/id/1583/marsh\\_millionov\\_v\\_regionah\\_obzor\\_publicpost/](http://publicpost.ru/theme/id/1583/marsh_millionov_v_regionah_obzor_publicpost/)(검색일: 2012.09.20).
- “Митинги в регионах,” <http://www.interfax.ru/society/txt.asp?id=229228><http://www.interfax.ru/society/txt.asp?id=229228>(검색일: 2012.09.12).
- “Портрет митингующего,” <http://storage.futubra.com/source/151960.jpg>(검색일: 2012.09.19).
- “Протестное движение в России (2011-2012),” [http://ru.wikipedia.org/wiki/Протестное\\_движение\\_в\\_России\\_\(2011-2012\)](http://ru.wikipedia.org/wiki/Протестное_движение_в_России_(2011-2012))(검색일: 2012.10.11).
- “Хронология акций протеста против фальсификации выборов в России (2011-2012),” [http://ru.wikipedia.org/wiki/Хронология\\_акций\\_протеста\\_против\\_фальсификации\\_выборов\\_в\\_России\\_\(2011-2012\)](http://ru.wikipedia.org/wiki/Хронология_акций_протеста_против_фальсификации_выборов_в_России_(2011-2012))(검색일: 2012.10.17).

## Резюме

###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и средний класс в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где были зафиксированы протесты против фальсификации результатов выборов

Чой, Ву Ик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автор исследует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и уровень жизни те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в которых наблюдался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ротестной активности, вызванной нарушениями в ходе предвыборной кампании в период с конца 2011 года до начала 2012 года. Автор пытается найти ответ на вопрос,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и главная роль в протестном движении принадлежала среднему классу. В 2000-е гг. на фоне политической стабилиз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и повышения уровня доходов населения в России стал формироваться средний класс. По некоторым оценкам, его размер составляет порядка 25%. Результаты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казали, что протестная активность наблюдалась как в регионах с высоким показателем численности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 так и в регионах с низким. Также она была зафиксирована в регионах, характеризующихся высоким уровнем бедности. Это дает основания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в протестах принимали участия н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реднего класса, 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азличных групп 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Данные протесты демонстрируют рост полит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в целом, стремление выразить свое мнение, поэтому их нужно рассматривать прежде всего с этой точки зрения.

#### 논문심사일정

논문투고일:	2012. 10. 25
논문심사일:	2012. 11. 1 ~ 11. 28
심사완료일:	2012. 11. 30